

청년창업, 자금 3000만원까지 지원·사무실 무상 제공

광주시 청년지원사업 본격화

광주시가 지역의 미래를 이끌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민선 6기 들어 청년 전담부서를 신설한 광주시는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 광주청년센터 신설, 청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청년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 등 청년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청년 예비 창업자 공모를 통해 창업 아이템 30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아이템은 '인도문화수요에 기반한 공업 브랜드' 등 문화 분야 10건, '스마트 외치용 디자인 밴드' 등 IT 및 3D 분야 10건, 자동차 안전장치 개발 등 자동차 분야와 지역의 주력산업인 광·가전 분야 10건 등이다.

이는 기존 수공업, 온라인 서비스 등 단순 1인 창업 영역을 넘어 지역의 전략 및 주력산업과 관련한 청년 창업 아이템이라는 점에서 지역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광주시는 이같은 청년 예비 창업자를 집중 지원·육성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제조업과 지식콘텐츠 등 창업이 가능한 아이템을 보유한 만 15~39세 청년이며 광주시가 지원하고 광주테크노파크가 위탁·수행한다. 청년 예비 창업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고 컨설

창업 아이템 30건 선정 육성

광주청년센터 위탁기관 공모

청년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도

팅, 창업교육을 한다. 광주예비창업보육센터 1년 무상 입주 혜택도 주어진다.

시는 또 광주 청년들의 문화·창의놀이 터가 될 (가칭)광주청년센터의 위탁 운영 기관도 공모에 들어갔다. 지역은 지난 3일 현재 사무소가 광주시에 소재하고, 최근 2년내에 청년관련 공익사업 활동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이다.

신청서식은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서 내려받은 뒤 제출서류를 작성해 오는 23~24일 시 청년인재육성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금남지하상가 내 비어있는 11개 점포(전체면적 203.64㎡)에 들어서는 광주청년센터는 지역 청년들이 교류하면서 문화·창의활동을 펼쳐나가는 거점 공간이다.

청년센터는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 환경 조성, 네트워크 구축·관리, 청년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청년활동단체와 교류·협력사업, 사회공헌형 청년도전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5월까지 수탁기관을 선정해 마



빛고을청년봉사단 발대...U대회 성공 힘 보탠다 '2015 빛고을청년봉사단'이 지난 3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오는 광주 U대회 성공개최 등에 힘을 보태기로 다짐했다. <광주시 제공>

무리하고, 오는 7월 센터 개관식을 열 예정이다.

시는 또 아르바이트 세대로 불리기도 하는 청년·청소년의 노동권리 확보를 위해 '알바 지킴이'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내년 2월부터 정식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노동관련 근무경력을 갖춘 노무사를 배치해 아르바이트 권익 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문화도시 광주에 걸맞은 문화예술 거점도시 조성 사업에도 청년을 우선 순위에 두기로 했다.

시는 2015~2020년까지 10억원을 투입해 청년 문화예술 기획자 등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청년문화예술 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창작 활동 지원, 청년 예술인 공간 활용 지원, 마을 청년예술 활동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정찬 광주시 청년인재육성성과장은 "청년이 살아야만 광주의 미래도 있다는 것이 민선 6기 시청 철학 중 하나"라면서 "청년이 살맛나는 광주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낙하산 막겠더니...관피아 물러난 자리에 정피아

세월호 이후 공공기관장·감사, 대부분 정치인·친박 차지

300곳 387명 조사...영남 38% 호남 14% 지역편중 여전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는 서울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출신이었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28곳, 준정부기관 85곳, 기타 187곳 등 공공기관 30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공석을 제외한 기관장·감사 387명 중 20.4%인 79명이 서울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과 경북 출신은 각각 49명(12.6%), 46명(11.8%)으로 서울 다음으로 많았다. 1년 전인 세월호 참사 당시와 비교하면 서울과 경남 출신이 각각 2명, 7명 늘어났고 경북 출신은 6명이 줄었다.

이어 대구 출신이 27명(6.9%), 경기와 전북 출신이 25명(6.4%)씩이었다. 다음으로는 부산 24명(6.2%), 충남 22명(5.6%), 전남 21명(5.4%), 충북 17명(4.3%), 강원 16명(4.1%), 제주 10명(2.5%) 순이었다. 대전(9명), 광주(8명), 인천(5명), 울산(1명) 출신은 각각 10명 미만이었다.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으로 묶어 비교할 경우 각각 73명으로 같았다. 호남 출신은 54명(13.8%)이었다.

출신 대학으로는 서울대가 104명으로 전체의 26.8%를 차지했다. 고려대와 연세대가 각각 29명(7.4%), 28명(7.2%)으로 뒤를 이었다. 한양대와 성균관대도 각각 18명(4.6%), 17명(4.3%)으로 비율이 높을 편이었다. 육사 출신은 13명(3.3%)이었다. 경북대가 11명(2.8%), 부산대가 10명(2.5%), 서강대와 이화여대가 9명(2.3%)씩 분포됐다.

출신 고교로는 경기고가 23명(5.9%)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고가 20명(5.1%), 서

세월호 이후 300개 공공기관 임원 변화 추이



울고가 15명(3.8%)으로 역시 상위권을 형성했다.

고시 출신은 79명으로 전체의 20.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행정고시 출신이 대다수인 66명에 달했다. 사법고시 출신은 10명, 외무고시는 2명, 입법고시

는 1명이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으로 기관장·감사 397명 중 118명(29.7%)이 '관피아'로 분류됐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는 161명(40.6%)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1년 새 관피가 숫자가 118명으로 43명(26.7%)이나 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세월호 이후 '관피아' 기관장·감사가 물러나면서 생긴 대부분의 자리는 '정피아'가 꿰찬 것으로 분석됐다. '정피아'는 정치인과 마피아의 합성어로 국회의원이나 의원 보좌관, 정당 관계자 같은 정치권

출신 집단을 의미한다. 세월호 사고 당시 공공기관 임원 397명 중 정피아는 48명(12.1%)이었으나 올해 3월 말에는 53명(13.4%)으로 증가했다. 정피아 기관장은 24명에서 28명으로 늘었다. /박진표기자 jkpark@kwangju.co.kr

호남고속철 증편 6개월 이상 늦어질 듯

수서발 KTX 지반 보강 공사...개통 내년 6월 이후로 지연

서울 강남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구간)의 개통이 당초 일정보다 6개월 늦어진 내년 6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고속철도가 평택 이남으로는 기존 호남고속철도와 경부고속철도의 선로를 이용하게 돼 있어 호남고속철의 증편도 그만큼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5일 "수도권 고속철도 공사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일정이 늦어졌다"며 "내년 6월까지의 개통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용인 등 일부 지역에 지반 문제가 있어 공사가 지연됐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2013년말 코레일의 자회사인 수서고속철도회사(주)SR)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때 2015년 12월 개통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와 비교하면 6개월 이상 늦어지는 것이다.

수서 KTX는 앞서 지반 문제 외에도 여러 난관에 부딪혀 공사가 지연돼 왔다. 예

초 정부와 서울시가 시종적역 변경 등을 놓고 다툰 지연된 데 이어 2013년에는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 건설 문제로 또 다시 공사가 늦어진 바 있다.

수서발 KTX와 선로를 함께 이용해 도시 시공에 들어가야 할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중간역 결정이 지연되면서 수서발 KTX 개통 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GTX와 공동 사용하는 동탄역의 사업비 문제로 공사가 늦어졌고 신갈 지역의 단층대 지반이 광역급행철도 지반을 보강하면서 공사하다 보니 공기가 늦어졌다"면서 "12월까지 공사를 끝내고 6개월 이상 시운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서발 KTX는 수서~평택 노선을 신설해 서울역~금천구청역 구간의 과부하를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 구간은 선로 용량 포화로 열차를 더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제8회 하나투어 웨딩&허니문 박람회

2015. 5. 9(토) ~ 10(일) 11:00~19:00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동구 불로동 96-7)

문의전화 062)228-1199

사전 예약 시, 다양한 특전 제공
허니문 상품 예약 시 최대 140만원 혜택 제공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1만원 권 증정

하나허니문 박람회 추천 상품

클래식 하와이 (오하우) 6일, 7일

총상품가 2,620,000원~
현지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 경비 있음
출발일 : 4월 ~ 6월 토/일/월
특 전 : 동반자 or 사전예약 할인, 쌍당 최대 40만원 할인
무료 룸 업그레이드(파살 오션뷰 → 오션프론트)
몰리네시안 민속촌 및 와이키펠레 프리미엄 아울렛

■여행상품 가격표(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관광진흥료, 관광진흥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 가이드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별도할증료 수 있으며, 별도할증료 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 지불하여야 합니다. (내역) 내역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www.hanatur.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내역) 내역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www.hanatur.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대비용: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사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습니다.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설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상교통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칭찬/불만접수 Tel 1577-1233ARS (내선번호 0번) ■여행 상품: 여행 상품 22억 1천만원 가입 ■항공권 또는 항공권을 포함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선택관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관광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참여 시 대체할 것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ur.com)를 참조하십시오.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침 현황: 1.여행 유의 2.여행 자제 3.불수 권고 4.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